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외 11월 동향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NACD's 'Directorship' magazine, Boards and transformation initiatives: Strategy is just the beginning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 기업의 전환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이는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자산 매각 및 인력 재구성 등 다방면의 노력을 포함함
 - 각 프로젝트는 기업운영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조직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사회는 전략 수립에서부터 실행 모니터링,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환 이니셔티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다운로드



QR 코드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마진 개선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진 개선은 성장, 유동성, 비용절감 및 인재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조직의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임 • 최근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300명의 경영진이 마진개선 장벽으로 인재부족(48%), 인플레이션(46%), 공급망 제약(38%)을 선정함 • 해당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추적 및 보고(72%), 데이터 가용성(62%), 리더십(46%)을 성공의 핵심요소로 지목함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 추적 시스템(72%), 데이터의 중요성(91%), 리더십(46%)을 꼽았으며 소수만이 거버넌스(28%)로 응답함 •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검토를 통해 이사회는 필요시 신속하게 전략 전환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선제적 대응은 목표실현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
이사회의 모니터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공식화된 프로세스는 이사회 참여를 더욱 촉진함 • 이사회 참여의 이점과 잠재적 장벽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이사회는 이러한 전환 프로젝트의 후기단계에서 참여가 소극적 - 추적모니터링시스템이 있어도 해당 정보가 항상 이사회에 전달되는 것은 아님 -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는 전략 수정을 용이하게 함

➤ 이사회 고려사항

주요 내용

- 현재 이사회 감독 및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중인 전환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한가?
- (그렇다면) 필요시 신속한 전략 전환이 가능할 만큼 모니터링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는가?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The Wall Street Journal' article - Audit Committees: So Much More Than Financial Statement Oversight

감사위원회: 재무제표 감독 그 이상의 역할

- ▶ 기업의 복잡성과 운영 환경이 확장되고 심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 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 딜로이트의 최신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Audit Committee Practice Report)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응답자들은 재무보고 및 통제를 제외하고 사이버 보안(63%), 전사적 리스크 관리(45%), 그리고 ESG 공시 및 보고(39%)를 올해의 3대 중점 영역으로 예상함
- ▶ 주요 내용

인공지능(AI) - 어디에 적합한가?

- 최근 많은 감사위원회에서 기술 관련 이슈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조직에서 기술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감독 주체를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
- 딜로이트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97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AI)에 관한 주요 감독 책임 주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ESG - 더 이상 자발적 노력이 아님

- 많은 기업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ESG와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공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감사위원회가 ESG 안건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해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준을 통합하고 향후 세계 각국에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증가하는 감독 범위

- 규제환경 강화부터 신기술 등장, 기후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롭게 기대되는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감사위원회의 책임 범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중대 변화가 있는 현시점이 이사회와 위원회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경영진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법을 찾을 적기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15 (수)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함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5),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23.5.2), 동 규정 2차 개정(23.9.14)

▶ 주요 개정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마련

-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을 규정화하고, 주요용어, 서식 등을 정비
 - '24.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기준도 적용 가능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
 -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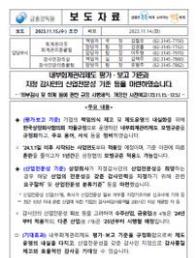
- 외감규정(제1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수차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토록 개정하고, 변경된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
 - * ①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 3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

▶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11.15~12.5)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것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14 (화) 금융감독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36개)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함

다운로드



QR 코드



1.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강화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어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함
 - * 사고 건수(금액) : '19년~'22년 (평균) 7.8건(143억원) → '23년 14건(668억원)
- 금융사고 은폐행위를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전수점검을 진행중이며, 향후 금융사고 인지도 즉시 보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준법감시인·CRO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임

2.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에 불법행위가 집중되어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대폭 강화 필요

- 불충분한 내부통제는 불법행위 발생개연성을 높이는 것을 인식하고 IB부문의 내부통제 대폭 강화를 당부함
 - 최근 IB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증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함
- 금융감독원은 IB부문의 불법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내년에도 지속 검사할 예정임

3. 리스크관리 강화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의 충분한 확보, 리스크관리 수준 강화 필요

-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시 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함
-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의 재발 방지 위한 관리를 요청함

4. 최고경영진과 소통 강화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 필요

-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강화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서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향후 금융감독원도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을 확인시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업계와 수시로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소통·협력하여 개선방안 모색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1 (수) 금융감독원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 금융감독원은 '23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상황 기재를 중점점검하고,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함

* '23.6.30.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 개정

▶ 주요 내용

1. '23년 반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 최근 3년간 사업목적에 추가한 총 1,047사 중 작성기준을 모두 준수한 회사는 516사(49%)임
- 점검항목 별로는 '③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② 사업 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의 미흡률이 각각 38%, 35%로 높음
- 유가증권과(47%)와 코스닥 상장사(52%)간 미흡률 차이는 크지 않음

<표1> 중점점검 결과

(단위: 사, %)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점검대상	326	(100)	721	(100)	1,047	(100)
양호	173	(53.1)	343	(47.6)	516	(49.3)
미흡*	153	(46.9)	378	(52.4)	531	(50.7)
① 사업목적 현황	4	(1.2)	15	(2.1)	19	(1.8)
② 사업목적 변경내용	90	(27.6)	279	(38.7)	369	(35.2)
③ 사업 추진현황	127	(39.0)	275	(38.1)	402	(38.4)

*점검항목(①~③) 중복 제거

2. 주요 신사업 추진 실태분석

- 테마주로 알려진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21~22)한 233사 중 추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모두 있는 회사는 83사**(36%)이며,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실적이 있는 회사는 47사(20%)에 불과함

* 조직인력 구성, 연구 및 제품개발, 매출발생 등

** 추가한 신사업 중 일부 사업만 추진실적이 있는 회사까지 포함시 104사(45%)

- 미추진기업 129사(55%)는 추진기업 대비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가 다수
- 신사업 발표 직후 추가급등시 최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철회하는 등 허위신사업 이용 부정거래 혐의 기업도 일부 발견

▶ 작성기준에 미흡한 531사에 중점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여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보완토록 안내할 예정임

▶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27 (금)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의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
-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
- ▶ 개정 주요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 1. 일반원칙 신설**
 - (현행) 의결권 행사 실무 관련 모범기준 부재
 - (개선)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
- 2. 실무중심 편제 개편**
 - (현행) 주주총회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임
 - (개선) 참조가 용이하도록 기업 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편제 개편
- 3.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
 - (현행) 법규와 권고사항, 원칙과 사례 불분명
 - (개선) 이사 선임요건 등 법규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원칙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고려요소 및 사례를 구분하여 제시
- 4. 사례 보완 및 현행화**
 - (현행) 최근 개정('16.6월) 이후 최신 사례 부족
 - (개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 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ESG 평가지표별 가이드라인 제시('21.12월)
- 5. 의미 명확화 및 용어정비**
 - (현행) 의미와 표현이 모호
 - (개선)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
* (예)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 → 의결정족수, 법정주식수 → 발행주식수

- ▶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함
- ▶ 동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27 (금) 한국ESG기준원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여 2023년도 ESG 등급을 공표함

- 지배구조 평가분야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지배구조	•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금융사 지배구조	• 이사회, 주주권 보호, 최고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ESG등급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함

- 'B+' 등급 이상은 42%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B' 등급 이하의 비율은 58%로 전년 대비 10%p 하락함

▶ 지배구조의 경우 전반적 평균이 상승하고 최상위권 기업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상·하위권 편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실질적인지배구조관행개선없이는등급상승이어려운점이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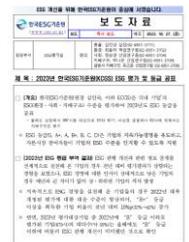
▶ 금융사 지배구조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과 유사하나, 중위권이던 보험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에서의 ESG 경영전략 내재화, 위험관리제도 및 승계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견인함

<표1> 지배구조 및 금융사 지배구조 영역의 전년 대비 등급 부여 현황 (유가증권시장)

등급	지배구조		금융사 지배구조	
	2023	2022	2023	2022
S	-	-	-	-
A+	8(▲3)	5	5(▲2)	3
A	110(▲33)	77	31(▲5)	26
B+	146(▲5)	141	44(▼6)	50
B	129(▼8)	137	25(▲1)	24
C	152(▼6)	158	7(▲1)	6
D	200(▼8)	208	5	5
총계	745(▲19)	726	117(▲3)	114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금융사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상위권 기업의 비율이 증가 또는 유지되었으나, 'B' 등급 기업의 비율은 줄어 하위권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25 (수)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 금융감독당국은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 1,340만원(1인당 평균 4,26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 금년 9개월간의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1억5,690만원 증가(278% ↑)하였으며,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금 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08년~'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건수	10	1	2	12	5	2	5
지급금액	11,360	330	11,940	40,840	22,860	5,650	21,340
평균지급금액	1,136	330	5,970	3,403	4,572	2,825	4,268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

- ▶ '22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하였고,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 * '23.1월 ~ 9월 중에는 76건(익명신고 15건)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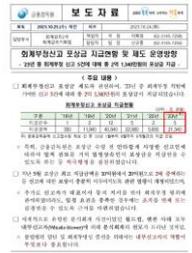
<표2>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익명신고 접수 건

- ▶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5사임
 - * ('17년)2사 → ('18년)6사 → ('19년)3사 → ('20년)6사 → ('21년)5사 → ('22년)2사
 - 이 중 23사는 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2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 진행중이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하여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함
- ▶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은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의 확대, 지급금액 증액* 및 산출방식 간소화,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치시 면제 또는 감경 근거 마련'이 제시됨
 - * 최고 지급금액: 10억원 → 20억원

다운로드



QR 코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독립된 통합회계감독위원회 설립할 때다 [한국경제]
- 금감원장 “감사품질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해달라” 회계법인 CEO들에 당부 [연합인포맥스]
- 노동 탄압?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상식 [조선일보]
- 제6회 회계의 날 기념식... 금융위원장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자본시장 발전 도모” [세정일보]
-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달 3일 제6회 ESG 인증포럼 개최 [조세플러스]
- “ESG 공시 준비됐다” 전세계 기업 4곳 중 1곳 뿐 [이코노미스트]



부정행위방지

- 금감원 “증권사 금융사고 예방·보고체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조선비즈]
- 금감원장 “최근 분식회계 유인 커져... 기업 내부통제 주의깊게 살펴야” [KBS뉴스]
- 감사인연합회, 내달 7일 ‘부정사고 적발과 내·외부감사인 책임’ 포럼 [한국세정신문]
- 금감원, 회계법인 부당 행위 발견... 엄중 조치 추진 [뉴데일리경제]
- 금감원, 올해 회계부정 신고 5건에 포상금 2억 지급 [동아일보]
- 부실 감사·권한 집중, 비영리단체 검찰 수사 대상 [중앙일보]



규제 동향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조문 신설 [KBS뉴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도 논란 지속 [의약뉴스]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10여개 글로벌IB 전수조사 [TBS뉴스]
- 금감원, 특별조사단 만들어 불법공매도 잡는다... 철저히 책임 물을 것 [조선일보]
- 한국ESG기준원, 2023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열린뉴스통신]



M&A

- 금융지주, 보험사 몸값 낮아지면 M&A 등판할까 [딜사이트]
- 엔씨소프트, “M&A 통한 성장 검토, 블록체인게임 시기상조” [비즈니스포스트]
-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M&A, 5000억 간극 좁힐까 [딜사이트]
- 제약사 M&A 공든 탑, 특허로 무너진다면? [팜뉴스]
- 하나·우리금융 ‘비은행 M&A’ 해야하는데... 보통주자본비율이 발목 [데일리한국]
- 역대 최대 M&A 단행한 아모레퍼시픽... 중국 줄이고 ‘북미 집중’ 가속화 [인베스트조선]
- IFRS17에 막힌 보험사 M&A... 매물만 5곳 쌓여 [뉴스핌]
- 카카오, 속도 높이던 해외 M&A 일시 멈춤 [서울경제]
- 우리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검토... M&A 전략 큰 틀 변화없어” [연합인포맥스]
- 올 상반기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M&A 상승 조짐 [히트뉴스]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빗썸, 지배구조 개선 추진...풀어야할 숙제는? [비즈니스워치]
- 구멍 메우기 나선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지배구조 혁신" [더팩트]
-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 단일 지배구조 완성 [디지털데일리]
- 삼성엔지니어링,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 돌입 [딜사이트]
- 공정위원장 "투명한 '지주사 체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도" [머니투데이]
- 국민연금, 카카오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주주권 행사 강화 전망 [조선비즈]
- 이창민 교수, 카카오 지배구조에 관해 코멘트 [뉴스H]
- 올해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은 누구? [지구인사이드]
- 흔들리는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한국투자증권이나 제3주자냐 [인사이트코리아]
- 더존비즈온, 최대주주와 합병... 왜 호재? [지구인사이드]



이사회·감사위원회

- 흥국생명, 이사회 내 'ESG위원회' 출범 [연합인포맥스]
- KDB생명 인수 막은 하나금융 이사회, 제 역할했다 [아주경제]
-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남긴 숙제 [매일경제]
- 김앤장 소속 사외이사, 아시아나 이사회 참여? 공정하지 못해 [지구인사이드]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한국경제]
- KCGS, 평가등급 나왔다... ESG 관행 개선됐으나 기업간 격차 늘어 [임팩트온]
- SK, 거버넌스 혁신 가속화... 이사회 견제·감독 기능 강화 [비즈니스플러스]
- 최태원 "CEO 균형감 의사결정 하도록 돕는 이사회 역할 중요" [로리더]
-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개최 [뉴시스]
- 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연합인포맥스]



한국 딜로이트 그룹

- 대법원, 교보생명 소송전서 어피네티 손 들어줬다 [더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2023 웨비나 성료, "이사회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감사의무 주목해야" [파이낸셜뉴스]
- 딜로이트 안진, '글로벌 공급망 포럼' 산업부·KOTRA와 공동 주최 [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5년 내 닥칠 도시문제 1순위는?... 주택·교통 아닌 '이것' [뉴시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대부분 도시 인재유치·기술 개발서 어려움 겪어" [이코노미스트]
- 국내기업, 미국 진출하려면... 딜로이트 안진, 북미 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 성료 [조선비즈]
- 딜로이트 안진, CCI와 손잡고 분쟁 지원 토털 서비스 박차 [리걸타임즈]
- 딜로이트안진·상장회사협의회공동제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영상 19편으로 해결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개최 결과

구분	내용		
일시	2023년 11월 9일 (목) 14:00 ~ 16:10		
프로그램	사회: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		
	시간	내용	Speaker
	14:00 ~ 14:05	Opening Remarks	사회자
	14:05 ~ 14:30	세션1. 투명공시와 신외부감사법의 효과	유승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30 ~ 14:55	세션2.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장정애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5 ~ 15:05	Break Time	
	15:05 ~ 15:30	세션3.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	이성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Core Technology (AI & DATA) 상무
	15:30 ~ 15:55	세션4.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임규동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재무그룹자문본부 파트너
	15:55 ~ 16:10	Q&A / Closing	세션 강연자, 사회자

다시보기

QR 코드



- 금번 세미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아젠다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세션을 선보임

환영사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는 이사회·감사위원회 역할 제고 및 당면 주요 실무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됨
- 향후로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들의 실무 수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유사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IV. 주요 행사

(계속)

Session 1. 투명공시와 신외부감사법의 효과

유승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공시는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신외부감사법 제정은 이 같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함
- ESG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업의 준비자세로는 기업에 도움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선제적 IR 활동을 통한 기업 활동의 신뢰성 확보와 일반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공시가 필요함을 언급함

Session 2.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장정애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회사에서 횡령 등 부정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최우선과제로 회사내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함
-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임

Session 3.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

이성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Core Technology, AI&DATA 상무

- 인공지능(AI) 기술 진화와 작업환경 변화 및 점진적 업무 혁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주요 AI·빅데이터 자문서비스 사례 소개 및 도입을 제언함
-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화두인 Chat GPT, AI·빅데이터 등 관심을 가져야 할 정보기술 항목을 시뮬레이션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추후 유관한 업무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함

Session 4.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임규동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재무자문본부 파트너

- 횡령 등 부정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부정 예방과 적발을 위한 회사 내부통제 설계와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함
- 해당 부정사건으로 촉발된 부정조사(외부감사법 제22조 관련)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고절차에 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공함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델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2024년 미국 경제 전망: 미국이 재채기하면 세계도 감기에 걸리는가?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1월 11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경제학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되는 금리 인상을 경험함에 따라 2024년 미국 경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할 예정임 • 미국 내외에 거점을 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이사회는 2024년을 앞두고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춰야 하는지,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와 총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고자 함

신청하기

QR 코드



델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생성형 AI: 이사회가 지금 알아야 할 사항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2월 8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기술 전문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가 기존 AI 접근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선도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임 • 'AI 확장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방법'은 오늘날 이사회에의 큰 과제임 • 생성형 AI의 미래와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최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설명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